

‘남느냐...’ ‘떠나느냐...’

‘MLB 도전’ 양현종, 이달 중순 거취 최종 결정

선발 투수진 구성 못한 메이저리그 구단 관심 “스플릿 계약 ‘NO’...마이너거부권 고집 안해”

미국프로야구(MLB) 진출에 도전하는 투수 양현종(33)이 거취 결정 시한을 이달 중순으로 재차 못 박았다.

양현종의 에이전트인 최인국 스포스타즈 대표는 “어느 팀에서 뛰건 양현종이 올 시즌을 준비하려면 이달 중순께엔 미국 진출 또는 한국 잔류 등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메이저리그 구단 쪽에도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고 5일 전했다.

최 대표는 미국에서 구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현지 에이전트와 협업으로 양현종의 국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최 대표는 “아직 5명의 선발 투수진을 확실하게 구성하지 못한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양현종에게 관심을 보인다”며 “일본 투수 스가노 도모유키(32)의 포스팅 절차가 끝나면 양현종의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에이스 출신인 스가노는 현재 뉴욕 메츠, 토론토 블루제이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메이저리그 여러 구단의 영입 대상으로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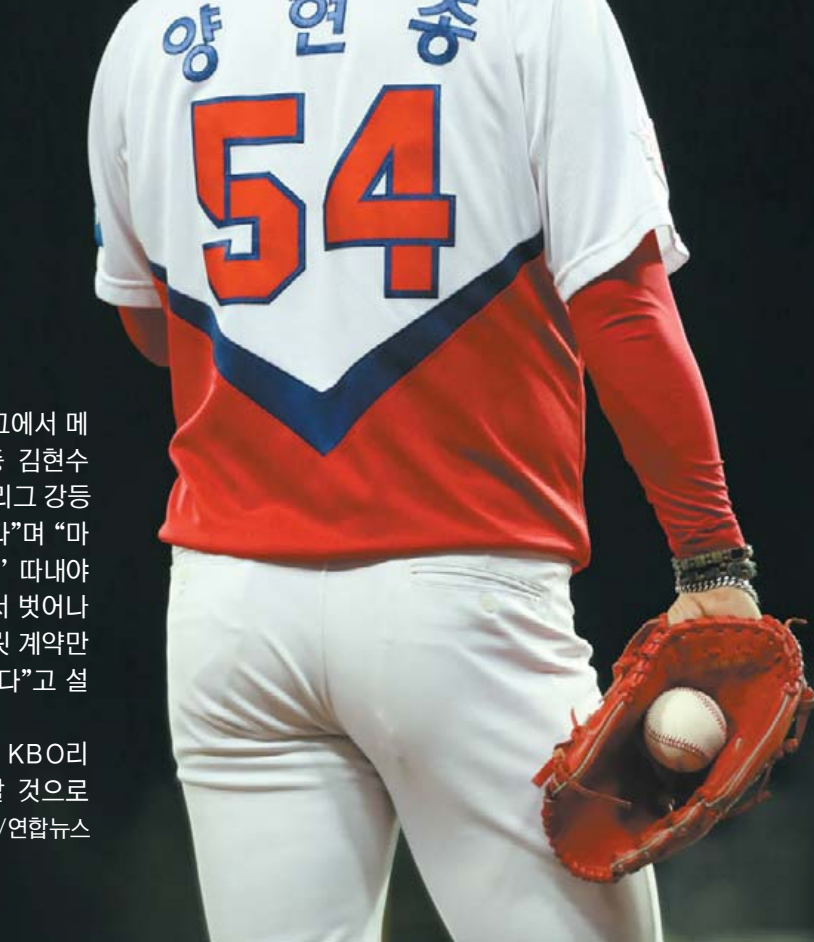
당장 2·3선발급으로 평가받는 스가노의 진

로가 결정되면 4·5선발급인 양현종의 계약 성사 여부도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표와 양현종은 최근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연봉 조건이 전혀 다른 스플릿 계약 제안은 수용하지 않되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고집하지 않기로 협상 전략을 수정했다.

최 대표는 “그간 KBO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선수 중 김현수(현 LG 트윈스)만이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을 계약서에 포함했다”며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반드시’ 따내야 할 조항으로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 융통성 있게 협상하되 스플릿 계약만 큼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IA 타이거즈는 양현종이 KBO리그에 잔류하면 최고 대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해 첫경기 교체 출전 이강인, 골·도움 침묵



5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발렌시아 CF 대 카디스 CF의 경기에서 발렌시아의 미드필더 이강인(왼쪽·20)이 카디스의 수비수 후안 칼라오른족(32)와 볼을 다루고 있다. 전반 26분 케빈 가메이로 대신 투입된 이강인은 후반 추가시간까지 70분 가까이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득점이나 도움은 추가하지 못했다. 발렌시아는 후반 13분 선제골을 내놨으나 후반 34분 막시 코메스의 동점골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발렌시아는 지난 11월23일 알라베스와의 10라운드(2대2 무승부)부터 리그 8경기에서 5무3패에 그쳐 리그 17위로 강등권 추락 위기에 몰려 있다.

/EPA·연합뉴스

김학범호, 도쿄行 기지개 켜다

11일 올해 첫 소집훈련...송민규·이동률 포함

2020시즌 프로축구 K리그1·2에서 나란히 ‘엠펙플레이어상’을 거머쥔 송민규(22·포항 스틸러스)와 이동률(21·제주 유나이티드)이 김학범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송민규와 이동률은 5일 대한축구협회가 발표한 남자 올림픽 대표팀의 2021년 첫 소집 훈련 명단에 포함됐다.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호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강원도 강릉과 제주도 서귀포에서 1차 국내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남자 국가대표팀과 스페

셜 매치를 앞두고 김학범호에 승선한 송민규는 3회 연속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동률과 박태준(성남FC), 최준(울산 현대)은 처음으로 발탁됐다. 김 감독은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을 앞둔 울산 선수들과 상무 입대를 준비 중인 조규성(23·전북 현대) 등을 제외하고 K리그와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선수 26명을 소집해 3주간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직력을 다질 계획이다.

대표팀은 11일 강릉에서 소집해 훈련

련한 뒤 19일 서귀포로 이동한다.

서귀포에서는 26일 성남, 30일 수원 FC, 다음 달 2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연습 경기를 치른다.

축구협회는 소집 기간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올림픽을 앞둔 만큼 새로운 각오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이기에 선수단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는 동시에, 어려운 사국이지만 울려를 축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체육회 신임 안병옥 행정지원처장 취임

“뉴 노멀 스포츠 시대’ 적극 대응”

안병옥(사진) 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이 전남도체육회 신임 행정지원처장으로 취임했다.

전남도체육회는 5일 “최근 제31차 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안병옥 신임 행정지원처장이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안 신임 행정지원처장은 1988년 나주시청을 시작으로 F1대회조직위원회 기획부장, 강진군 부군수,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특히 F1대회 지원본부와 조직위원회를 거치면서 메이저 스포츠대회 유치 등 전남체육 발전을 위한 체육행정 역량을 경험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안 처장의 부임으로 현재 가장 큰 현안인 지방체육회 법정 법인화 추진과 2년 앞으로 다가온 2023



년 제104회 국제체육대회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30여년 공식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소통을 강화하며 스포츠로 건강한 청정블루 전남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신임 행정지원처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비대면 스포츠 활동의 다양화 등 뉴 노멀 스포츠 시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장 큰 현안 사업인 지방체육회 법인화 전환에 힘을 쏟아 전남체육이 독립할 수 있는 기틀을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홍성길 후보 당선

“엘리트·생활체육 상생 발전 최선”

홍성길(사진)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광주시체육회는 5일 “이날 치러진 제2대 광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홍성길 후보가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홍성길 당선인은 2016년 체육단체 통합 당시 초대 배드민턴협회장을 지내며 배드민턴 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해 지역 배드민턴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생활체육 동호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광주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민대상(체육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 2017년부터 광주코리아마스터즈 국제배드민턴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



서 전국 최초로 한 지역에서 연속해서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홍 당선인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종목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안전한 운동 여건을 조성하며 시민에게 다가가는 협회를 만들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과 화합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홍 당선인은 광주시체육회 인준을 받아 앞으로 4년간 협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희중 기자

KBO, ‘솔(SOL)토브리그’ 이벤트

KBO와 타이틀 스폰서 신한은행이 비시즌 야구 감동을 느끼는 팬을 위해 ‘솔(SOL)토브리그’ 이벤트를 연다.

KBO는 5일 “솔토브리그 이벤트는 야구팬들의 관심사인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예측하는 ‘2021 KBO FA를 맞춰라’, 2020시즌 KBO리그를 빛낸 선수를 투표하는 ‘솔야구 어워즈(AWARDS) 투표 이벤트’로 구성했다”며 “오늘부터 신한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FA를 예측하는 이벤트에 참여해 FA 대상 선수의 계약 구단, 기간, 금액 등을 맞춘 고객은 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는다.

솔야구 어워즈 투표 이벤트는 총 네 차례 진행된다.

가장 많은 팬 투표를 얻은 선수에게는 신한은행에서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추첨을 통해 수상 선수의 친필 사인 기념품부터 상품권, 마이신한포인트를 팬들에게 제공한다.

/연합뉴스

“형제는 용감했다”

kt 허훈·원주 DB 허웅, 프로농구 올스타 투표 1, 2위

프로농구 부산 kt의 가드 허훈(26)이 2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했다.

KBL은 “4일 마감된 올스타 팬 투표 결과 허훈이 3만2천642표를 얻어 최다 득표를 기록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해 올스타 팬 투표에서도 1위에 오른 허훈은 이로써 2년 연속 최다 득표의 영예를 누렸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허훈은 이번 시즌에도 어시스트 7.5개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3일 고양 오리온을 상대로는 20점, 15어시스트로 맹활약했다.

허훈의 형인 원주 DB 허웅(28)이 3만1천421표를 받아 2위에 올랐다.

허웅 역시 2015·2016시즌과 2016·2017시즌에 2년 연속 올스타 투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허웅, 허훈은 ‘농구 대통령’으

로 불린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아들이다.

1997년 출범한 프로농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형제가 1, 2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팬 투표 1·5위는 허훈, 허웅, 송교창, 양홍석(kt), 김시래(LG) 순으로 지난해 1·5위인 허훈, 김시래, 양홍석, 송교창, 이정현(KCC)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대현(전지랜드), 박준영(kt), 문성곤(KGC인삼공사), 아이제야 히스(삼성), 타일러 데이비스(KCC)는 처음으로 올스타에 뽑혔다.

팀별로는 kt가 4명으로 가장 많고 DB와 KCC, 전지랜드, 인삼공사, 삼성이 3명씩이다. 오리온과 LG가 2명씩 뽑혔고 SK는 김선형이 유일한 올스타가 됐다.

올해 올스타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는다.

/연합뉴스



영국 BBC 선정 EPL 17라운드 ‘이주의 팀’ (BBC 홈페이지 캡처)

‘리즈戰 1골 1도움’ Son, BBC ‘베스트11’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몰아친 손흥민(29·토트넘)이 영국 공영방송 BBC가 뽑은 2020·2021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가 5일 발표한 ‘가스 크룩스의 이주의 팀’에서 3·4·3 포메이션의 우측 공격수로 자리했다.

토트넘에서는 손흥민 홀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2일 홈구장에서 열린 리즈와의 2020·2021 EPL 17라운드 홈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 팀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그는 팀이 1·0으로 앞선 전반 43분 케인이 오른쪽 측면에서 찢러준 패스를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추가 골을 작성했다.

손흥민의 리그 12호(시즌 15호) 골이자 토트넘 통산 100호 골이었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그는 253번째 경기에서 100번째 득점에 성공했다.

손흥민은 후반 5분 코너킥으로 토비 알데르바이르트의 헤기 골까지 도왔다.

‘이주의 팀’을 선정한 축구 전문가 크룩스는 “손흥민과 케인이 다시 뭉쳤다. 이 콤비는 리즈에 비참한 오후를 선사했다”며 “그들은 단 몇 분 만에 리즈를 파괴했다. 손흥민의 득점을 만든 케인의 패스는 훌륭했고, 정확한 마무리로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손흥민과 함께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아스널), 에베레치 에제(크리스털 팰리스)가 공격수 부문에 포함됐다.

/연합뉴스